

슬기로운 외식생활... 너 때문에 파김치... 중2병엔 쫓면...

재미·소비자 감성 호소 찾아온 사람들은 '박수'

도-생진원, '메가쇼 2020 시즌2' 연계 프로모션서

전북 공동 세일즈관 운영 3억원 상담 성과 올려

도내 농식품 기업 제품들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응'

전북도와 생활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 세텍에서 열린 '메가쇼 2020 시즌2' 연계 프로모션 행사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외식생활'과 '아빠는 출장중, 엄마는 외리중' 컨셉으로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를 접목한 전북 공동 세일즈관을 운영하고, 도내 전통식품 및 농식품 기업 10여개사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도와 2억4,000여만원의 납품 계약성과와 현장매출 2,500만원 등 약 3억원의 상담 성과를 올렸다.

식품, 간편식품, HMR식품 등 도내 전통식품 및 유망식품의 수도권 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북 공동 세일즈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전북도와 생진원은 참가기업의 수도권 판로확보와 성과증대를 위해 기존 제품의 개선, 디자인 리뉴얼과 간편 소포장 등 참가사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전컨설팅으로 준비도를 높이고, 현장 프로모션 운영의 노하우 등 기업의 비즈니스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한 차별화 마케팅으로 행사를 운영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에서 각 참가기업에서도 재미있고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제품으로 리뉴얼한 도내 농식품 기업 제품들을 선보였다. 아리올현푸드의 '너 때문에 파김치',

세이농산의 '중2병엔 쫓면', 더고은의 '속이 뻥 뚫리는 고구마', 밥닥의 배가 출출할땐 나를 불러줘 '닭날개 볶음밥' 등 재미있고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도내 농식품기업의 제품들이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현장에 내방한 바이어들과 열띤 납품 상담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알에프(오미자주), 예미담(부각), 선영이네(김치), 산마투(누룽지), 디자인농부(건강선식), 더웬은협동조합(쌍화차), 씨엠에프엔비(육수팩), 봉동생강마을(생강조현), 향토사원개발연구소(에너지라이스볼), 이고장식품(액상차) 등 참가기업의 우수품목들도 내방한 관람객과 바이어의 큰 관심을 받아 현장판매 '완판'과 더불어 향후 상담결과에 따라 추가 납품을 위해 준비중이다.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진원은 전라북도도와 함께 도내 농식품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와 생활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서울 세텍에서 열린 '메가쇼 2020 시즌2' 연계 프로모션 행사에서 전북 공동 세일즈관을 운영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만금사업 입찰 참여 기회 부여·하도급 공사 참여 확대를”

전전협 전북도회 도 감사관과 간담회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26일 전북도회 사무실에서 전라북도 감사실 주무관들을 만나 새만금 사업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도내 대형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 공사물량 확보 및 수주확대, 전문건설업 업역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26일 전북도회 사무실에서 전라북도 감사실 주무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태경 회장은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 공정한 사무로 청렴 전복을 위해 애쓰시는 감사관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도민에게 보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민생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올초 인프라건설을 위한 투자(SOC)예산이 12.8% 증가한 22조원대로 회복됐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계획에 나름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건설업계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으로 SOC예산도 일부 삭감되어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가 되었으며, 기록적인 폭우와 연이어 발생한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용에 의거 해당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올바른 전문건설업종으로 발주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달란”고 요청하며,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적정공사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공사 설계 시 표준품셈의 합리기준을 명확히 반영하는 등 세심한 지도와 관리”를 부탁했다.

이에, 전라북도 감사실 측은 김태경 회장의 의견에 수긍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와 함께 새만금 사업과 도내 대형 건설현장에 전라북도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도내 전문건설업 업역보호 및 발주 확대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김윤상 기자



장미 우량계통 선발 현장평가회 전북도농업기술원이 장미 신품종 전시와 우량계통 선발을 위한 현장평가회가 최근 생산자, 소비자, 유통전문가 및 플로리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6일 밝혔다.

전은, 내부통제 자가진단 시스템 오픈

레그테크 기반... 여신취급 과정에서 발생 고질적 위법사항 분석

전북은행은 IT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6일 '레그테크 기반 내부통제 자가진단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레그테크'란 규제를 뜻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자동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시 수검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활용하는 레그테크 검사기법을 은행의 내부통제 업무에 도입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을 위한 데스크포스팅(TFT)을 구성해 1년여에 걸쳐 여신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건전 불공정 영업행위를 사전에 인지가 가능한 진단지표를 개발해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에 장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여신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위법 부당사항을 분석해 진단항목을 도출한 후, IT기술을 활용해 여신취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자동 탐지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된 내부통제 자가진단 시스템이다. 특히 은행 업무 중 취약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여신관련 업무를 우선적으로 개발했으며 향후 여타 업무로 확대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내일 '나와 새만금의 성장앨범 포토존' 준공 제막식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나와 새만금의 성장앨범 포토존' 준공 제막식을 오는 28일 새만금 방조제 소라쉼터에서 개최한다. '나와 새만금의 성장앨범 포토존'은 새만금 방문 시 촬영한 새만금의 변화 모습을 사진첩으로 제작해 자신의 성장과정과 새만금의 발전과정을 동시에 비교하며,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관계기관(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

만금개발공사)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제막식에는 군산시 신현승 부시장, 김제시 강해원 부시장, 부안군 박현규 부군수, 새만금개발공사 공회성 전략사업본부장이 참석해 공동사업 추진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포토존은 새만금의 변화모습을 조망하기 쉬운 방조제 4개소 해남이 휴게소, 신시광장, 소라쉼터, 가력도체육공원에 설치했다. /유호상 기자

국민연금, 코로나블루 극복 '온택트 여가활동' 운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0월부터 전주시 평생학습관과 함께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온택트(On-tact)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으로 장기간 지친 직원들의 생활에 활력과 재충전 시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진행중인 온택트 프로그램은 비즈공예, 가죽공예, 플라워 아트 등이다. 교육은 실습 재료가 담긴 학습꾸러미를 개인별로 제공 후, 동영상 강의와 모바일 어플 '줌(ZOOM)'을 활용해 실시간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플라워아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직원들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생각보다 많아 신선하게 느껴졌다"며 "꽃꽂이를 통해 힐링된 기분이며, 퇴근 이후 여가 참여시간이 간절히 기다려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단은 앞으로 지역주민 및 협력업체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직원 및 지역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활력이 넘치는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LX, 성기청 신임 상임감사 임명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제23대 상임감사를 맞았다. LX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감사에 성기청 씨가 임명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성기청 상임감사는 직원들에게 "LX가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청 상임감사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 융통성을, 공감능력을 갖춘 친화력을 중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바른 감사, 든든한 감사, 다양한 감사가 되겠다"며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사가 발전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성기청 상임감사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원광대학교 사회과를 졸업하고 10년 간 국회 보좌관, 송파구청 연구단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당협위원장, 국민참여당 지역위원장, LX 회사사 파트너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성기청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2년 10월 21일까지다. /김윤상 기자

하림, 할로윈 홈파티용 제품 추천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홈파티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음식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닭고기 제품을 추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됐지만, 집에서 안전하게 할로윈 분위기를 내고 싶은 현명한 소비자들 사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만파만 신제품이다. '하림 손수 만든 안심튀김'은 닭 한 마리에서 딱두 조각 나오는 안심 통살에 고소한 빵가루를 입힌 제품이다. 프라이팬 하나로 조리 완성되는 '하림 한판 닭불고기'는 부드러운 닭고기 순살을 얇게 썰어 양념한 제품이다. /익산=장원 기자



축사 환기·난방 '꼭' 가축 질병 예방에 도움

농진청, 온도감지기 정전·화재 알림장치 필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가 큰 요즘, 가축의 질병 예방을 위해 꼼꼼한 환기·난방 관리를 26일 당부했다.

기상청은 기상전망에서 11월은 평년보다 춥고, 12월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축사는 크게 개방형 축사와 무정형 축사로 나뉘며, 축사 형태와 축종에 맞는 축사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축사를 환기할 때는 축종별 저온기 권장 최소 환기량을 참고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무창형 돈사, 계사는 인기 배플의 틈새를 좁게 해 들어오는 공기의 속도를 높이고 각도를 조절해 외부 공기가 시설 상층부의 따뜻한 공기와 뒤섞일 수 있게 관리한다. 음압식 환기를 실시할 때, 환기구, 출입문, 천정, 벽면의 이음새를 밀봉해 틈새 바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방형 돈사, 계사는 윈치 커튼을 밀봉하고 파이프 입기구(入氣口)를 이용하거나 이중 윈치 커튼을 이용해 가축에게 차가운 공기가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한다. 대부분 개방형인 우사는 차갑고 건조한 강풍이 부는 날 윈치 커튼을 내리거나, 담근 먹이 통치(사일리지 콘포)를 쌓는 방법으로 바람을 막는다. 축사 내부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도 감지기는 위치별로 여러 개 배치하고, 축사 외부에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난방기를 가동하기 전, 먼지와 거미줄을 제거하고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관찰한다.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난방기는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며 화재, 정전을 방지하고 가능하면 정전·화재 알림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정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농장주에게 알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해당 장치는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사업을 신청하면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유동조 축산환경과장은 "축종과 축사형태에 맞는 꼼꼼한 환기와 보온 관리를 통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